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Building Method of Collaborative Network for Disaster Response

박 미 리* · 옥 영 석** · 전재준***

Park, Miri · Oak, Young-Suk · Chon, Jae-Joo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재난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지역특성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피해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국외에는 이러한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구축네트워크를 광역방재거점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협업 및 협력에 대한 매뉴얼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거점형태의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 재난관리, 협력구축네트워크, 광역방재거점, 민관네트워크

1. 서 론

우리나라는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적·사회적 재난, 자연재난을 일원화시키고 주요내용을 통합하고 2010년에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현재는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및 민관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시스템 등 공공부문에서 제도적으로 물리적 시스템 개선이 도모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메르스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초동대응 및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이 부족함이 발생하였다. 재난의 발생은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해관리는 유형, 발생원인 및 발생단계에 따라 피해자, 공동체, 정부, 학계, 기타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등과 같은 광역방재거점 등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추후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본론

2.1. 국내 민간 부문 협력 네트워크

국내에서의 재난대응에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 YMCA 등이 있으며, 일본 및 미국

* 정희원 ·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전임연구원, miri6756@naver.com

**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선임연구원 oys@kodipa.or.kr

***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장 부이사관 jjchon@korea.kr

처럼 민간부문에서의 인적네트워크를 집약하여 관리하는 조직은 없다. 다만 2013년 5월에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발족되어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응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방, 대응 및 지원분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예방, 안전문화 교육 등 역할을 담당하는 예방분과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10개 단체, 인명구조·수색, 응급복구 등 역할을 담당하는 대응분과는 한국구조연합회, 해병대전우회 등 11개 단체, 의료 및 법률 상담, 심리상담 등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분과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상태이다. 하지만,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MOU 에 의해서 체결된 민간부문 동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 국외 민간 부문 협력 네트워크

일본의 재난관리자원 지원체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재난피해가 발생하는 광역적인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대한 광역방재응원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자원봉사자네트워크(NVNAD : 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긴급 소방 원조대, 재해 파견 의료팀(DMAT), 분야별 민간기업 협력, 광역 방재거점의 정비를 진행했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응원 협정을 통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미국에서는 정부, 기업, 공동체 및 NGO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일본에서의 민간자원봉사자네트워크(NVNAD)와 같이 미국에서도 전국재해자원봉사협의회(NVOAD :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가 역할조정을 하고 있다. FEMA DHS(2008-2)에 따르면, 미국적십자사(ARC)는 공공업무와 엔지니어링, 긴급지원거주사업, 지역사회복구 등에서 지원기관으로써 역할을 할당받았으며, 재난관리자원봉사협의회(NVOAD)는 긴급지원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구에 보조기관으로써 역할을 할당받아 대응하고 있다.

3. 결론

효과적인 재해 대응 업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방재거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신속하고 필요한 인력(자원봉사자 및 민간기업 협정)의 확보과건, 두 번째로는 물자 조달 및 운송(민간기업 협력), 세 번째로는 활동 거점 확보(광역방재거점)가 중요하다. 따라서 추후 각 지역특성에 따라 예산 지원 및 운용방안, 현실성, 장단점 등을 도출하여 재난특성에 맞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지원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2017-MPSS31-0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S.H. Park, H.J. No, D.S. An, “ An Analysis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etwork Governance”, Korea Journal Public Administration, Vol.42, No.1, pp.103-132, 2004
- Jun TOBITA, Nobuo FUKUWA, Masaru NAKANO, Develop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base for collaborative activities in disaster mitigation, Japan Architectural Institute Technical Report Vol.20, No.20, pp.367-370, 2004
- S.I. Ryu, H.-W. Ahn, “Improving Disaster Response System Using Network-Focused on Korea and Japan’s Disaster Cas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7, No.2, 2007